##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현장화보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천막결사와 태화산예비순례를 마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사부대중은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시작해 구미와 상주, 문경, 충주, 여주, 양평을 거쳐 서울 봉은사에 이르는 총 500km의 순례다. 82명의 순례자와 1일 참가자들은 하루에 30km 이상 묵언하며 걷고, 길에서 공양하고, 텐트에서 잠을 잤다. 결사의 새로운 길이다. 결사의 이유와 실천 모두 새로운 생각과 결집으로 회향했다.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쉴 수 없는 화두와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숙제를 함께하자는 대작불사다. 21일 동안의 대장정을 사진으로 돌아본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 萬行結社의 새 지평을 열다



순례 입재 법회의 증명법사로 참여한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순례 대중에게 정진을 독려하는 법어를 내리고 있다.



10월 7일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대불보전 앞 광장에 모인 82명의 결사 대중과 불자들은 이번 순례의 성공을 발원하며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입재법회에는 나경원 前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 등 내외빈도 동참했다. 특히 나경원 前 의원은 일일 동참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0월 7일 순례를 마친 참가자들이 대구 강변리틀야구장서 각자의 텐트를 찾아 공양과 취침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7일 충북 괴산 나무야나무야 캠핑장서 하루의 순례를 무사히 마친 모든 참가자들이 합장으로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고 있다.



조계사는 순례단을 위해 문경새재 정상서 커피트럭을 대절해 커피와 차 등을 보시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교직원 모임인 연우회가 순례를 마친 참가자들을 진료하고 있다.